

명리 고전 하이라이트 강독 I

8강 신살 I

李虛中命書
子平粹言



삼기귀인 <淵海子平> 論三奇貴人

天上三奇甲戊庚, 地下三奇乙丙丁, 人中三奇壬癸辛.

천상 삼기는 甲戊庚이고, 지하삼기는 乙丙丁이며, 인중삼기는 壬癸辛이다.

8강 신살 I

註) 甲戌庚者, 以甲爲日, 以戌爲月, 以庚爲星, 既有日月星爲奇.

地支須得戌亥爲天門, 方得爲奇. 若無戌亥, 須有日月星而無天門, 則不爲奇矣.

而有天門, 若有丑卯酉巳 又不爲奇. 寅中有箕星好風, 酉中有畢宿主雨, 丑卯爲風雷, 則三光失明, 奇不得時也.

地下三奇, 乙木爲陰木之魁, 丙爲陽火之君, 丁爲陰火之相, 此地有之爲奇.

須用乙, 乙屬坤土, 若無則不吉.

甲戌庚은 甲은 해, 戌는 달, 庚은 별이 된다. 해와 달과 별이 있으니 기특한 것이다.

지지에 戌亥를 얻으면 천문이 되니 더욱 기특하다. 만약 戌亥가 없으면 해 달 별은 있고 천문이 없으니 기특한 것이 되지 않는다. 천문이 있더라도 丑卯酉巳가 있으면 기특하지 않다.

寅에는 기성이 있어 바람을 좋아하고, 酉에는 필성이 있어 비를 주관하며

丑과 卯는 바람과 번개가 되니 해달별의 빛이 밝음을 잃어 때를 얻지 못한 것이다.

지하삼기는 乙은 음목의 우두머리가 되고, 丙은 양화의 임금이며, 丁은 음화의 재상으로 이 셋이 땅에 있으면 기특함이 된다. 乙은 坤에 속하니 없으면 길하지 않다.

〈三命通會〉 論三奇

《太乙經》以辛壬癸爲水奇, 謂之人間三奇, 其說無據,

但辛壬癸天干連珠, 謂之三台, 亦爲難得.

三奇要順布, 不欲倒亂, 如乙丙丁, 甲戊庚, 天干年月日時順布爲吉.

〈태을경〉에는 신임계로 수기(水奇)를 삼고 이를 일러 인간 삼기라고 하는데
이 설은 근거가 없다.

다만 신임계의 천간이 연주하면 이를 일러 삼태라고 하니
이 역시 얻기 어려운 것이 된다.

삼기란 순서대로 포국됨을 요하니 넘어지거나 어지러움을 바라지 않는다.
곧 을병정과 갑무경 같은 것이니, 천간에 순포되므로 길함이 되는 것이다.

8강 신살 I

《廣錄》又以乙人丙月丁時，是乙生丙丁，秀氣下降，主平常。

若乙時丙日丁年，是秀氣上達，反爲貴，似又不論順逆。

甲戌庚卻以順者爲貴，逆者福慢，亂者不壽，氣清則貴，氣濁則富。

〈광록〉에는 을인이 병월 정시가 있는데 이는 을이 병정을 생한 것으로 수기(秀氣)가 하강하는 것이니 명주가 평상할 뿐이다.

만약 을시에 병일 정년이라면 이는 수기가 상달하는 것이니라 도리어 귀함이다. 또한 순역을 논하지 않으니 갑무경은 도리어 순한 것으로 귀를 삼고 거역한 것은 복이 태만하다 하며 어지러운 자는 장수하지 못한다. 기가 청한즉 귀하고 기가 탁한즉 부이다.

8강 신살 I

凡命遇三奇, 主人精神異常, 襟懷卓越, 好奇尚大, 博學多能.

帶天乙貴者, 勳業超群; 帶天月二德者, 凶災不犯. 帶六儀者, 才智出類.

帶三合入局者, 國家柱石, 帶官符劫煞者, 器識宏宏 帶空亡生旺者, 脫塵離俗,

富貴不淫; 威武不屈, 值元辰, 咸池, 衝破, 天羅地網者, 為無用.

무릇 삼기라 하는 것은 주로 사람의 정신이 특출 난 것이니 생각하는 것이 민첩하고 탁월하다.

기이함을 좋아하고 큼을 숭상하며 널리 배워 재능이 많고 천을 귀인을 두른 자는

勳業(훈업)이 群雄(군웅)에서 뛰어나니 또 천월이덕을 두른다면 흥재가 범하지 않는다 한다.

六儀(육의)를 두른 자는 지혜가 출중하며 삼합을 두어 입국을 한 자는 국가의 기둥과 초석이 될 것이며

官符(관부)와 劫煞(겁살)을 두른 자는 識者(식자)의 그릇이 크고 넓다 할 것이다.

공망생왕을 두른 자는 탈속을 한 사람이고 부귀해도 음탕치 않고 威武(위무)로도 굽힐수 없는 자이다.

원진 함지 충파 천라지망을 둔 자는 쓸 데가 없다.

8강 신살 I

論三奇, 太歲不帶而月日時帶著, 孤獨.

詩曰：“順十干神乙丙丁, 神童及第播聲名；日時祿馬公卿煞, 換武除文佐聖明.”

又曰：“順十干神甲戊庚, 兼得長生丙府名；若然無祿兼無馬, 只是財中蓄積人.”

又曰：“三奇須是重逢貴, 方是榮華福壽人；只有空奇無貴地, 貧窮下賤被欺凌.”

삼기를 논함에 “태세에는 두르지 않고 월일시로 두른 자는 고독하다”고 했다.

시(詩)에 이르기를 “천간의 을병정을 순포하면 신동급제로 이름을 드날린다.

일시에 녹마라면 공경인데 살을 바꾸어 무는 제거하고 문이 보좌하니 밝고 성스럽다”고 하였다.

또한 “갑무경을 순포하고 겸하여 장생을 얻으면 양부의 이름이다.

그러나 무록에 무마라면 이는 다만 재물을 축적하는 사람에 지나지 않는다”고 하였다.

또한 “삼기는 모름지기 귀를 거듭 만나야 영화롭고 복되며 장수하는 사람이다,
단지 헛된 기만 있고 귀가 없으면 빈공한 하층민으로 사기와 능멸을 당한다”고 했다.

천월덕귀인 <三命通會> 論天月德

夫德者, 利物濟人, 掩凶作善之謂也.

貴神在位, 諸煞伏藏; 二德扶持, 衆凶解散.

凡命中帶凶煞, 得此二德扶化, 凶不爲甚; 須要日上見, 時上不犯剋沖刑破, 方吉.

凡人得之, 一生安逸, 不犯刑, 不逢盜, 縱遇凶禍, 自然消散.

대저 덕이란 사물을 이롭게 하고 사람을 구제하는 것으로,
흉함을 가리고 선을 지음을 일컫는 것이다. 이 귀인이 있으면 제살이 옆드려 숨는다.

이덕이 돕고 지지하면 여러 흉함이 모두 해산한다.

무릇 명중에 흉함을 들렸어도 이 이덕이 화함을 얻으면 그 흉이 심하게 드러나지 않는다.
모름지기 핵심은 일간에서 시상을 보는 것이니 극충형파를 범하지 않아야 바야흐로 길하다.

범인이 이를 얻으면 일생이 편안하고 한가로워 형벌이 없고 도적을 만나지 않으며
흉화를 만나도 자연히 해소되고 사라진다.

8강 신살 I

與三奇, 天乙貴同並, 尤爲吉慶.

或財官, 印綬, 食神, 變德, 各隨所變, 更加一倍之福.

入貴格, 主登科甲, 得君寵任; 或承祖蔭, 亦得顯達.

入賤格, 一生溫飽, 福壽兩全; 縱有蹇滯, 亦能守分固窮, 不失爲君子. 女命得之, 多爲貴人之妻.

《子平賦》云: “印綬得同天德, 官刑不犯, 至老無殃.” 是天德勝月德也.

삼기 천을귀가 병행하면 또한 길하고 경사스러움이 더해진다.

혹 재관 인수 식신 등이 덕으로 변하니 각각이 변하는 바를 따르고 다시금 더하면 그 복이 배로 증가한다.

귀격이 들면 명주가 과감에 올라 임금의 총애와 임직을 얻는다. 혹 조상 음덕을 계승하면 역시 현달한다.

천격에 들어도 일생이 등따시고 배부르며 복과 수가 양전한다. 어찌다 지체됨이 있어도 능히 분수를 지키고 실

로 궁하다해도 군자됨을 잃지 않는다. 여명이 이를 얻으면 귀인의 처가 되는 일이 많다.

〈자평부〉에 이르기를. “인수가 천덕을 얻으면 관의 형벌이 범하지 않으며 늙도록 재앙이 없다”고 했다.

이는 천덕이 월덕보다 낫다는 것이다.

태극귀인 〈三命通會〉 論太極貴(一名 科名星)

太極者, 太初也, 始也, 物造于初為太極, 成也, 收也, 物有所歸曰極.

造化始終相保, 乃曰太極貴也. 甲乙木先造乎子, 坎水助而生, 後終乎午, 離火焚而死.

丙丁火先喜出乎震, 卯也, 後喜藏乎兌, 酉也. 庚辛金得寅, 乃金生乎艮, 見亥乃金廟乎乾. 壬癸水先得則生, 後得巳而納.

經曰: 地陷東南, 四瀆俱流巽位, 皆有始有終之意. 己, 土也, 喜生乎申, 得辰戌醜未為正庫.

일명 과명성이다. 태극이라는 것은 太初이고 시작이다.

아무것도 없는 태초에서부터 만물이 생성되었으니 태(太)가 된다. 極은 이룸(成)이요 거둠(收)이니 다시 되돌아가는 바가 되어 극(極)이라 하는 것이다. 시작에서부터 끝날 때까지 서로 도와가며 조화를 이루니 태극이다.

甲乙 木은 子 즉, 감(坎) 水의 도움을 받아 생한 연후에 午 즉, 리(離) 火를 생하여 주고 죽는다.

丙丁 火는 먼저 진(震)으로부터 나옴을 좋아하니 震은 곧 卯이고, 다음 태(兌)로 숨음을 기뻐하니 兌는 곧 酉이다. 庚辛 金은 寅을 얻음에 간(艮)에서 생함을 받고, 亥를 본즉 金의 사당이 되니, 亥는 곧 건(乾)이다.

壬癸 水는 먼저 申을 얻어 생함을 받은 후에, 巳에 그 모습을 감춘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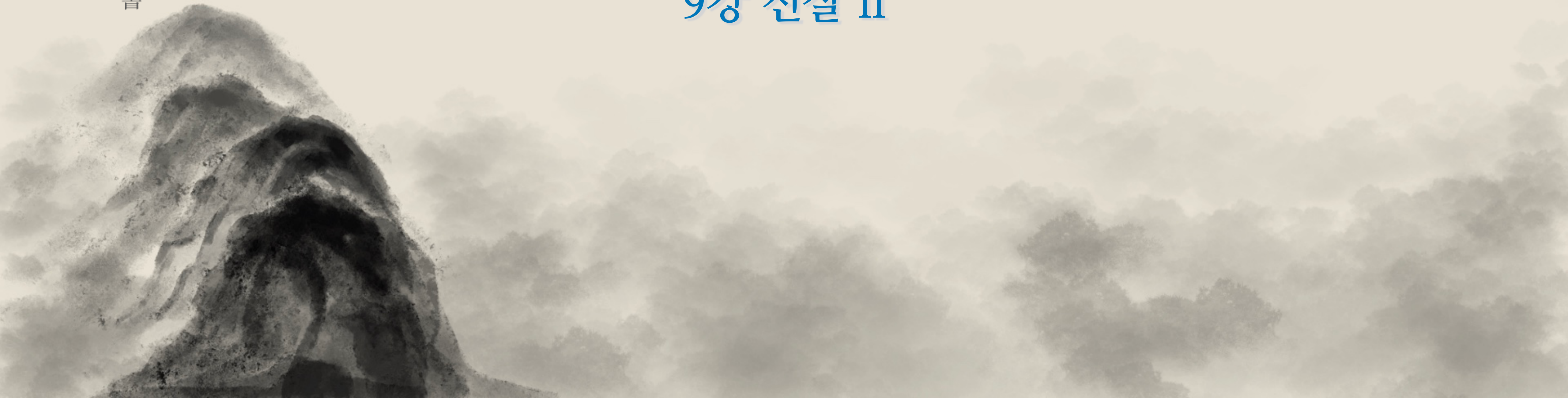
경에 이르기를 “모두가 유시유종, 즉 시작이 있고 끝이 있다는 뜻이다.”

戊己 土는 申에서 생함을 기뻐하고, 辰戌丑未를 얻으니 바른 창고가 된다.

명리 고전 하이라이트 강독 I

9강 신살 II

李虛中命書
子平粹言



학당(學堂)귀인

문창(文昌)귀인

문곡(文曲)귀인

〈三命通會〉 論學堂詞館

夫學堂者, 如人讀書之在學堂; 詞館者, 如今官翰林, 謂之詞館, 取其學業精專, 文章出類.

長生乃學堂之正位. 臨官乃詞館正位, 如金命壬申, 金臨官在申; 壬申. 餘以類推.

火長生寅, 臨官巳, 庚辛人得之.

又名官貴學堂, 以官貴長生之位爲學堂, 官貴臨官之位爲詞館也.

대저 학당이라하는 것은 독서하는 곳이다. 공부하는 학교 및 관청이니 관직이라면 한림학사에 해당한다고 할 것이다. 그 학업을 정진시켜서 문장을 출중하게 하는 것이다.

장생이 학당의 바른 방위이다.

임관은 가르치는 관청이 되며 정위는 금명이라면 임신이 된다. 나머지도 이와 같다.

병화의 장생인 인목이고 임관은 사화인데 경신인이 이를 얻은 것을 두고 관귀(官貴)학당이라고 하는데 관귀가 장생지에 학당이 되는 것을 말한다.

관귀와 임관이 자리한 것을 사관(詞館)이라 한다.

9강 신살 II

有學堂會食, 如甲食丙, 得丙寅; 乙食丁, 得丁巳; 丙食戊, 得戊申之類.
兼官印, 驛馬, 其福厚; 遇祿, 貴, 奇, 德, 其氣清; 值刑克衝破, 其氣濁.

清則科名巍峨, 厚則官尊榮顯, 濁則福祿微薄, 官職卑賤.

有生處見克, 如甲乙人辛亥, 丁丙人壬寅, 戊己人甲申,
庚辛人丁巳, 謂之官星學堂. 主登科甲, 入侍從.

學堂(학당)에 食神(식신)에 모이는 것이 있는데 가령 甲에게 丙은 식신인데 丙寅을 얻는 것을 말한다.

관인과 역마가 겹하여 있으면 그 복이 두텁다. 녹, 귀, 기, 덕을 만나면 그 기가 맑다.

형극충파를 만나면 기가 탁해진다. 기가 맑은 즉 등과의 이름이 높고, 두터운 즉 관작이 빛나고 드리남이 있다.

탁하면 봉록이 미미하고 낮으며 관직이 비천하다.

생처를 극하는 경우가 있다. 가령 甲乙 인이辛亥를 보고, 丙丁 인이壬寅을 보고 戊己 인이甲申을 보고
庚辛 인이丁巳를 보는 것을 관성(官性)학당이라 하는데 주로 등과하여 임금을 옆에서 모시는 영예를 누린다.

凡學堂詞館, 切不要犯空亡及衝破.

〈祝勝經〉雲：“甲辰丙寅, 學堂不眞；或止富蔭, 官職卑貧；讀書修學, 空有虛名.”

此言學堂怕落空也.

무릇 학당사관은 일체 공망 및 충파를 범하지 말아야 한다.

〈축승경〉이 말하길 甲辰이 丙寅을 만나 이룬 학당은 참이 아니라 한다.

부를 쌓아도 그늘에 숨은 정도요 관직은 낮고 가난함에 그친다.

독서 수학에 공연히 허명만 두고

이 말은 학당이 공망에 떨어지는 것을 두려워한다 하는 것이다.

〈三車〉雲：“學堂無氣，惟利師儒。”此言學堂要乘旺也。

〈理愚歌〉雲：“學堂如更朝驛馬，位極勳高壓天下。”此言學堂要有馬也。

又雲：“生來祿馬眞學堂，若同詞館主文章；遇中不遇人誰會，不遇沖克福祿昌。”

〈삼거〉에서 말하길 학당이 기운이 없으면 오직 훈장 정도 하는 것이 이롭다 하니
이 말은 학당이 왕기를 타야 한다는 말이다.

〈이우가〉에서는 학당이 거듭 역마와 만나면 자리가 높아서 공훈이 높아 천하를 누른다 하였다.

이는 학당이 역마의 힘을 갖는 것을 중요히 여김을 보여준다.

또 장생이 와서 녹마가 같이 있음을 진학당(眞學堂)이라 하는데

만일 사관(詞館)이 같이 하면 주로 문장이 아주 높다. 만난 중에도 만나지 못하니 어떤 사람이 모이겠는가.

충극을 만나지 않으면 봉록이 창성하다고 하였다.

양인

〈三命通會〉 論羊刃

對宮曰飛刃 又曰唐符

《三車》云：“羊言剛也，刃者取宰割之義。”

祿過則刃生；功成當退不退則過，越其分如羊之在刃，言有傷也。

故羊刃常居祿前一辰。

서로 마주 대하는 궁의 위치는 비인(飛刃)이라고 부른다. 또 당부(唐符)라고도 한다.

〈삼거〉에 이르기를 양(羊)은 기운이나 세력이 한창 왕성한 것)을 말하는 것이다.

인(刃)이라는 것은 침략하고 압박하고 착취하고 유린하는 것을 취하는 뜻이다.

건록을 지나게 되면 곧 인(刃)이 생겨나서 자라나게 된다. 공로가 이루어졌으면 당연히 물러나야

하는데 물러나지 않으면 곧 그 소임의 정도를 넘어서 지나가는 것이 된다.

예를 들면, 기운이나 세력이 한창 왕성한 것(羊)이 침략하고 압박하고 착취하고 유린하는 것(刃)

에 있게 되므로 손상이 있게 되는 것을 말하는 것이다.

그러므로 양인은 항상 건록의 한 개의 별자리에 앞서 머무르게 된다.

9강 신살 II

希尹曰：“陰陽萬物之理，皆惡權盛。”

當其極，處火則焦，滅水則湧，竭金則折，缺土則崩，裂木則摧折，故既成而未極，則爲福，已極則將反而爲凶。極盛之地，十干中正處是也。卯者，甲之正位，爲陽木之極；辰者，乙之正位，爲陰木之極；午者，丙之正位，爲陽火之極；未者，丁之正位，爲陰火之極；酉者，庚之正位，爲陽金之極；戌者，辛之正位，爲陰金之極；子者，壬之正位，爲陽水之極；丑者，癸之正位，爲陰水之極。當其極處，其氣剛烈暴戾不和。

희운이 말하기를, 음양과 만물의 이치는 모두 지극히 왕성하면 나쁘게 되며, 당연히 그 극처에 이르면, 화(火)는 곧 타서 소멸하게 되고, 수(水)는 곧 한꺼번에 솟아나서 없어지게 되며, 금(金)은 곧 부러져 이지러지고, 토(土)는 곧 터져 갈라지게 되며, 목(木)은 곧 꺾여 부러지게 된다.

그러므로 이미 이루었으나 극에 이르지 아니하면 복이 되고, 이미 극에 이르렀으면 장차 도리어 흉하게 될 것이다.

극성의 땅이란 십간 중에서 정처가 이 곳이다.

묘(卯)라는 것은 갑목의 정위이니 양목의 절정이 되고, 진(辰)이라는 것은 을목의 정위이니, 음목의 절정이 되며, 오(午)라는 것은 병화의 정위니, 양화의 절정이 되고, 미(未)라는 것은 정화의 정위니, 음화의 절정이 되며, 유(酉)라는 것은 경금의 정위니, 양금의 절정이 되고, 술(戌)이라는 것은 신(辛)의 정위니, 음금의 절정이 되며, 자(子)라는 것은 임수의 정위니, 양수의 절정이 되고, 축(丑)이라는 것은 계수의 정위니, 음수의 절정이 된다.

당연히 그 극처에 이르면 그 기는 강하면서 맹렬할 것이며, 난폭하고 포악하며 잔혹하므로 화목하지 않을 것이다.

所以祿前一辰爲羊刃，對沖爲飛刃。

既盛而未極，則溫柔和暢，故刃後一辰爲祿也。

壺中子云：“凡人有祿，必賜刃以衛之，此其義也。”

《一行命書》云：“羊刃重重又見祿，富貴饒金玉”

그런 까닭에 건록 전 한 자리가 양인이 된다. 이와 충이 되는 것이 비인이 된다.

이미 이루어졌으면서 아직 절정에 이르지 못하면 곧 온화하고 유순하여 조화롭고 순조로울 것이다.

그러므로 양인의 뒤 자리가 건록이다.

호중자가 이르기를, 무릇 사람에게 녹이 있음에 또한 반드시 칼날을 하사함으로써 이를 호위하는 바,

이것이 바로 그 뜻이라고 하였다.

일행선사의 명서(命書)에 이르기를, 양인이 겹치고 겹치면서 또 건록을 보게 되면,

부귀하면서 금옥관자를 붙인 벼슬아치로 넉넉하게 될 것이라고 하였다.

9강 신살 II

《洞玄經》云：“官，印相助福相資。”

是羊刃帶祿，更有官，印相資，尤作吉論。

如專羊刃，主眼露性急，兇暴害物，親近惡黨，生旺稍可，死絕尤甚。

在五行敗者逢之，多患瘰癧或瘡癤，金刃之災，不論貴賤，多冗雜勞迫，少得安逸。

〈동원경〉에 이르기를, 관인이 서로 돕게 되면, 복이 서로 돕게(相資) 된다.

무릇 양인이 건록을 두르고, 다시 관인이 서로 돕고 있으면, 더욱 길한 것으로 본다.

예를 들어, 오로지 양인이면, 안구가 노출되면서 성질이 급함을 예시하며, 흥포하고, 사물을 해치게 되며,

악한 무리와 친하고 가까우며, 생왕은 조금은 괜찮고, 사절이면 더욱 심하다.

오행에 욕지(敗)가 있거나 만나게 되면, 목 부분의 임파선에 만성의 종창(瘰癧, 나력)의 병에 걸리는 것이 많다.

혹은 피부 질병이나 장기 질병 많다. 금 양인의 재앙(災)은 귀천을 따로 논하지 않으며,

일이 쓸데없이 뒤섞이어 번잡하거나 압박을 받는 것이 많고, 편하고 한가로움을 얻는 것이 적다.

9강 신살 II

《太乙經》云：“六甲生人逢乙卯，丁卯，爲真羊刃。

若重犯，主殘疾，官祿失退則散在晚年。餘卯爲偏刃，則輕。”

《廣信集》有刃頭財，如甲人見己卯之類，謂之銷煞。

主財帛歇滅，常人以屠沽刀鋸等事爲業，或因被盜而致命者。

〈태을경〉에 이르기를, 六甲 생이 乙卯, 丁卯를 만나게 되면, 참된 양인이 된다. 만일 겹쳐서 범하게 되면, 불구가 되거나 관위에서 물러나고 봉록을 잃게 되므로 곧 재산의 흠어짐이 노년에 있게 된다.

나머지 묘목, 즉 己卯, 辛卯. 癸卯는 치우친 양인(偏刃)이 되므로 그 기운이 가볍다.

〈광신집〉에 인두재(刃頭財)가 있는데, 예를 들면, 갑목 생이 기묘(己卯)와 같은 부류(類)를 보는 것으로 그것을 일러 소용살(銷鎔煞)이라고 일컫는다. 재화를 멀하여 마르게 하는 것을 예시하며, 보통 사람은 백정(도축업), 술장수, 칼과 톱 등을 사용하는 직업을 삼는다. 혹은 도둑을 맞아 생긴 피해가 치명타가 되기도 한다.

9강 신살 II

有刃頭鬼, 如甲人見辛卯之類, 謂之持刃煞, 主人不令終, 雖入貴格, 亦不可測.

甲乙人見之, 尤緊. 多腦疽發背而終.

《金書命訣》有羊刃相蝕, 如甲寅虎, 兔, 甲戌狗兔之類, 見所蝕年月稍可, 日時至危.

若見兩重, 更值空亡, 設非相蝕, 亦犯流配至老, 主不善終.

인두귀(刃頭鬼)가 있다. 예를 들면, 갑 일간이辛卯와 같은 부류(類)를 보는 것으로 지인살(持刃煞)이라고 일컫는다. 명주가 제 명에 종신하기 어려우니 비록 귀격에 들어도 예측이 불가하다.

갑을(甲乙) 생이 이를 보게 되면 더욱 형세가 긴박하게 된다. 머리에 종양이나 등창으로 죽는 경우가 많다.

〈금서명결〉에 양인이 서로 좀 먹어 손상시키는 경우가 있다. 예를 들면, 갑인(甲寅) 호랑이가卯 토끼를 보는 것,

甲戌 개가 역시 토끼를 보는 것과 같은 부류는 침식하여 해를 입히는 것을 보게 된다.

년월은 조금은 괜찮고, 일시는 위태함에 이르게 된다. 만일양인이 겹쳐서 중한데, 다시 공망을 만나면 서로 손상시켜 손해를 입히는 것(相蝕)은 아니지만 또한 유배를 범하여 노인에 이르게 된다. 끝마무리를 잘하는 죽음에 이르지 아니하는 것이다.

9강 신살 II

又連珠刃, 如庚戌, 辛酉, 戊午, 己未, 丙午, 丁未, 甲辰, 乙卯, 壬子, 癸丑, 皆凶象也.

金緊木慢, 女命犯之, 定剋夫害子, 不貞潔.

《玉霄寶覽》有攬轡澄清格, 謂貴人乘馬而前視羊刃, 猶馬頭帶劍之義.

假令庚午人得乙酉或己酉日時帶甲申爲入格.

午馬在申, 庚祿在申, 乙巳貴在申, 庚羊刃在酉, 卻乙巳貴人取甲申爲驛馬而前視羊刃, 故曰攬轡澄清. 此格多爲清嚴之官.

또 연주 양인이 있다.

예를 들어, 경술(庚戌), 신유(辛酉), 무오(戊午), 기미(己未), 병오(丙午), 정미(丁未), 갑진(甲辰), 을묘(乙卯), 임자(壬子), 계축(癸丑)은 모두 흉한 상이다.

금은 긴박하고 목은 게으른데, 여명이 그것을 범하면, 남편을 극하고 자식을 해치는 것은 정해져 있다. 정조가 굳고 행실이 결백한 것은 아니다.

〈옥소보감〉에 남비징청격(攬轡澄清格, 말고삐를 잡아당기어 혼란한 국면을 평정하다)이 있는데

귀인이 말을 타면서, 앞서 양인을 보는 것을 일컬어, 마치 말을 타고 검을 차는 것과 같다.

이렇게 보면, 庚午 생이 乙酉을 얻고, 혹은 己酉가 일어나 시인데 甲申을 두르게 되면, 격에 들어가게 된다. 午의 역마는 申에 있고, 庚의 건록도 申에 있으며,

乙, 己의 천을귀인 역시 申에 있는데, 양인은 유(酉)에 있다. 도리어 乙巳의 귀인은 甲申을 타게 되면 역마가 된다.

곧 앞서서 양인을 보는 것이다. 그러므로 남비징청(攬轡澄清)이라 일컫는다. 이 격은 탐욕이 없으면서 맑고 매우 철저하고 바르고 엄한 벼슬아치가 많다.

공망

〈三命通會〉 論空亡

空對實, 亡對有言. 神白經雲: 空亡空亡幾多般, 十幹不到作空看.

洞玄經雲: 循窮而亡生. 故以甲旬盡處曰空亡, 蓋有是位而無祿, 曰空; 有支而無干, 曰亡.

如甲子的遁至酉而十幹足, 所以無戌亥, 餘五幹例見, 是為空亡.

然空而有實, 亡而有存, 所以未可便為凶論.

공(空)은 실(實)의 대척점이고, 亡은 有의 대칭이다.

〈신백경〉에 말하기를 공망이라는 것은 무엇을 말하는가? 천간이 이르지 못해 빈 것을 말한다.

동현경에 말하길, 둔해서 막히면 공망이 생긴다.

그러므로 갑순(甲旬)이 다하는 곳을 이르러 공망이라 한다.

대체로 자리는 있는데, 록(祿)이 없는 것을 공망이라 하니

공망을 말하여 지지는 있으나 천간이 없는 것을 공망이라 하였다.

가령 갑자순이 酉에 이르면 천간이 모두 차는데, 이로써 戌, 亥는 배당되는 곳이 없다.

나머지 다섯 旬도 이로 미루어 본다. 그러나 비었다고 해도 실체는 있는 것이다.

망해도 존재함이 있는 것이니 일률적으로 공망을 흉하다고 논해서는 안된다.

9강 신살 II

珞錄子 論 空亡雲：五陽令用一陽，五陰令用一陰。

假如甲子，丙寅，戊辰，庚午，壬申則用戌不用亥；乙丑，丁卯，己巳，辛未，癸酉則用亥不用戌。

陽分陽年，陰分陰年。又說：甲子至戊辰，以戌為空亡；己巳至癸酉，以亥為空亡，分上下五年。

中間又 分甲子至戊辰，見壬戌為重，見戊戌之類為輕；己巳至癸酉，見癸亥為重，見乙亥之類為輕。

如甲子生甲戌時，此時上正見 差輕；如己巳生癸亥時，亦時上內犯，最重。

낙죽자 논하길, 공망이라 하는 것은 五陽은 一陽을 쓰고 五陰은 一陰을 쓴다고 한다.

가령 갑자순이라면, 甲子, 병인, 무진, 경오, 임신 인즉 戌은 사용하여도 亥는 사용하지 않고,

을축, 정묘, 기사, 신미, 계유는 亥를 쓰지만 戌은 쓰지 않는다고 하니 陽은 양년을 적용하고 陰은 음년을 적용한다.

또 말하길, 甲子에서 戊辰에 이르면 戌로써 공망을 삼고, 己巳에서 癸酉에 이르러서는 亥로서 공망을 삼는다 했으니 상하 5년을

나눈다. 갑자로부터 무진에 이르는 것을 나누어 임술을 보면 무거운 것이 되고, 무술을 보는 종류는 가벼운 것이 된다고 한다.

기사에서 계유에 이르면 계해를 보는 것이 무거운 것이 되며, 을해를 보는 종류가 가벼운 것이 된다. 가령 갑자생이 갑술시라면 시

상에서 바로보는 것이라 가볍고, 가령 을생이 계해시를 만나면 역시 시상에 범하는 것이라 가장 무겁다 한다.

9강 신살 II

指迷賦 雲：祿入空亡，必分前後之辰，所以表陰陽之分，明輕重之等也。

八字金書 雲：甲寅旬，壬癸落空亡；甲辰旬，甲乙；甲申旬，丙丁；甲戌旬，庚辛。

以地支二位而論天干，或謂 十惡大敗。犯此日生者，主貧賤。

然人命見空亡而合格者多。

<지미부>에 운하되, 祿이 공망에 들어가면 필히 전후로 나누어 구별해야 한다.

이로써 음양을 나누어서 경중을 살펴야 한다.

팔자금서에 말하길, 갑인순중에는 壬癸가 공망이고, 갑진순중에는 甲乙이 공망이며,

갑신순중에는 丙丁이 공망이고, 갑술순에는 庚辛이 공망이다.

이 지지 두개로 천간을 논하는 것이니 혹 십악대패일이라 하는 것은 이날 태어난 사람이니 주로 빈천하다고 한다. 그러나 사람의 명에서 공망을 보아도 격을 갖춘 자가 많다.

9강 신살 II

凡帶此煞, 生旺則氣度寬大, 動招虛名, 長大肥滿,

多意外無心之福, 死絕則一生成敗飄泊, 但在我有氣之地, 則不能為禍.

大忌支幹與天中相合, 是謂小人得位, 則奸詐譎詭, 靡所不為.

若為我所克, 是謂天中肥殃, 反為特達之福(原注: 如戊午火人見甲子金之類).

其神性無常, 與官符並, 則佞媚多文, 與劫煞並, 則狡勇; 與亡神並, 則飄蓬; 與大耗並, 顛倒突; 與建祿並,

一生破散; 與咸池, 六害並, 多兇暴卒; 惟夾貴, 華蓋, 三奇, 學堂並者, 大聰明, 脫俗之士.

공망살이 있는데, 생왕한 즉 기운의 정도가 관대하고, 움직이되 빈 이름을 부른다.

장대하고 비만하며 뜻하지 않은 의외의 복이 들어오기도 한다.

공망이 사절이 되면 일생동안 성패가 많아서 떠돌이로 돌아다니며 다만 자신의 기가 있으면 화가 되지는 않는다.

또한 공망은 간지가 합되는 것을 매우 꺼리는데, 소인이 자리를 얻음이니 간사하고 남을 기만하며 못할 것이 없다는 식으로 나댄다.

만일 내가 극하는 것이 공망이 되면 천중살이 도리어 재앙을 입으니 특별히 발달하게 된다. 가령 무오 화인이 갑자 금의 종류를 보는 것과 같다.

공망살의 신성은 항상성이 없으니 관부와 더불어 있으면 문채가 아름답고, 겁살과 더불어 있으면 용맹스럽고 사나우며, 망신과 더불어 있으면

쑥대가 회오리 바람을 만난 것 같으며, 대모 원진과 더불어 있으면 엎어져 거꾸로 돌진하며, 건록과 함께 있으면 일생동안 파산하며, 합지와 육

해살과 더불어 있으면 흉폭함이 많아 죽게 된다.

천을귀인을 공협하고 화개, 삼기, 학당 등과 같이 있으면 총명하여 세속을 벗어난 선비라 할 것이다.

9강 신살 II

又雲：天中一煞，不可全以凶言，如柱中有惡神，惡煞禍聚之地，全要空亡解之；有空亡不宜見合，合則不能空矣。

若祿馬財官福聚之氣，全怕空亡散之；有空亡卻喜見合，合則不能空矣。若無沖無合無刑，謂真空亡。

四孟太毒，只作小伎巧求人。又，甲子旬水土，甲戌旬金，甲申旬火土，甲午旬火土，甲辰旬木，甲寅旬水土，為真空亡。

又雲：響之有聲，莫非虛中也。是以大人之命，要有虛中之德。空亡自旺有用，乃大聲大應之器。

月，日，月時三位俱空亡者，不害為大貴人。若值兩位，雖有官，不大。

또 말하길 천중일살은 가히 온전하게 흉하다고만 논할 수 없다.

사주중에 악신이 있어 재앙이 모이는 곳은 공망으로 이를 해결한다(흉신은 공망되면 좋다).

이때 습을 보는 것이 적당치 않다. 합한다면 공망으로 해소하지 못하기 때문이다. (흉신이 합되어 있으면 공망으로 해소하지 못한다)

만일 록마, 재관 등 복이 모이는 곳은 공망이 되는 것을 두려워 하는데, 공망이 되면 기운이 흩어지기 때문이다. 이때는 공망이 합이되면 좋다.

즉, 합을 하면 공망이 작용하지 못하기 때문이다(길신이 합되어 있으면 공망이 작용하지 못한다). 만일 충도 없고 합도 없고 형도 없으면

이를 眞공망이라 한다. 만일 진공망이 인신사해가 되면 지독한 것인데, 다만 작은 재주와 기교로 살아가는 자이다.

또 갑자순은 水土, 갑술순은 金, 갑신순은 火土, 갑오순은 火土, 갑진순에는 木, 갑인순에는 水土가 있는데 이를 진공망이라 한다. 또 말하길 울리면

소리가 있게 되는데 소리는 속이 비어야 크게 난다. 그래서 대인은 허종의 덕을 구한다. 공망이 스스로 왕하면 쓰임새가 있는데, 큰 소리를 내려면 속이 비어 있어야 한다. 월, 일, 시가 모두 공망인자는 해가 되지 않으며 대귀인이 된다. 만일 두자리가 공망이면 비록 관이 있어도 크지 않다고 한다.

9강 신살 II

又雲：凡命值空亡，時上見，多拗性，為事高而虛，更遇華蓋，決主少子。

日上見，多庶出，或妻妾間離遇偶合則多淫蕩。

古歌雲：胎裏生逢怕遇空，遇空時節自昏蒙；饒君十步有九計，不免飄飄西復東。是胎中忌見空也。

又雲：建祿臨空虛有名，平生向學老無成；若逢馬貴來相救，縱得官時又復停。是建祿忌見空也。

又雲：甲寅戊午及庚申，丑上天中最不仁；本分生來當受祿，因逢五鬼遂衰貧。

또 말하길 사주에 공망을 時上에서 보는 자는 심성이 비뚤어지고 일은 많아도 헛된 것이며, 거듭하여 시상에서 화개를 만난다면 자식이 적다. 日上에서 보면 서출이 많고, 혹 처첩간에 이별이 많고 또 배필을 만나도 음탕한 경우가 많다.

고가에 말하기, 태월에서 공망을 만난다면 사람이 혼몽하며, 아무리 좋게 보아도 십중팔구는 동서로 떠돌아 다니는 사람이 된다.

이것이 태에서 공망을 보는 것을 꺼려하는 이유이다.

또 말하길 건록이 공망되면 유명무실하고 평생에 배우는 사람으로 늙어서 까지도 이루는 것이 없다. 만일 록마가 挾이 되면 구원함을 보지만 설사 관을 얻더라도 곧 그만두게 된다. 이것이 록이 공망됨을 특히 꺼리는 이유이다. 또 말하길 갑인, 무오, 경신이 丑(천을귀인이자 공망)상에 천중살이 되면 최고로 어질지 못하게 된다. 그리고 본래 록을 받는데 五鬼를 만남으로써 쇠하고 가난해진다.

9강 신살 II

有截路空亡, 正如人在途中遇水, 不能前進, 不可以濟, 故曰截路, 只以日取時見之.
如甲己日遁十二時中, 申酉上見壬癸, 故甲己見申酉, 乙庚見午未, 丙辛見辰巳,
丁壬見寅卯, 戊癸見戌亥, 此二時上俱遇壬癸為水故也.
此空亡非但命見不吉, 凡出入, 求財, 交易, 上官, 嫁娶, 百事皆忌.

절로공망이 있는데 이것은 사람에게 있어 도로 가운데서 물을 만난 것과 같아서 전진하지 못하는데
또 구제하지도 못하는 것이니 길이 끊겼다고 한다. 다만, 일로써 시를 취하여 보는 것이다.
가령 갑기일에 십이시 중에서 찾되, 신유상에서는 임계를 보는 것이다. 그러므로 갑기일은 신유시상에서 임계
를 보게되고, 을경일은 오미시상에서 보게되며, 병신일은 진사시상에서 보게 되고,
무계일은 술해시상에서 보게되니 이 두 시상에서 다 임계를 만나서 水가 되는 것이다.
이 공망은 비단 명에서 보는 것이 불길할 뿐만 아니라
출입과 재물구하고 교역을 하고, 벼슬에 나아가고 시집장가 가는 등 백가지 일을 다 꺼린다.

9강 신살 II

有四大空亡, 六甲中, 甲辰, 甲戌二旬, 金木水火土全, 丙甲子,
甲午旬生人見水, 甲寅, 甲申旬獨無金, 此四旬者五行不全.

如甲子, 甲午旬獨無水, 甲寅, 甲申旬生人見金, 謂之正犯.

如當生年中不犯, 行運至水金處亦謂之犯. 若帶得, 主一生蹇滯, 不問貧賤富貴, 皆夭折.

三處重遇, 瞬息為期. 壺中子雲: 顏回夭折, 只因四大空亡. 正謂此也.

사대공망이 있는데, 육갑중에 갑진 갑술 이순에는 금목수화토가 온전하다.

그러나 갑자 갑오순에 생한 사람은 水가 공망이 된 것이고, 갑인 갑신 순에는 유독 金이 없다.

따라서 갑자 갑오 갑인 갑순 사순자는 오행이 전부 있지가 않다.

만일 갑자 갑오순 사람이 水를 보고 갑인, 갑신순 사람이 金을 볼 경우 사대공망을 범한 것이다.

가령 응당 생년중에 범하지 않더라도 행운에서 금수처에 이르면 역시 사대공망을 범한 것이라 한다.

만일 사대공망이 있으면 일생동안 일이 지체되고 부귀 빈천을 불문하고 요절한다.

삼처가 거듭 만나면 순식간에 기약을 한다고 한다.

호중자가 말하기 공자 제자 안회가 요절한 것은 다만 이 사대공망으로 인한 것이라 한다. 사대공망은 이를 두고 하는 말이다.

9강 신살 II

洞微經 有五鬼空亡, 甲己人見巳午, 乙庚寅卯, 丙辛子醜,

丁壬戌亥, 戊癸申酉, 限至斯鄉, 主貧.

有克害空亡, 甲乙人見午, 丙丁申, 戊己巳, 庚辛寅, 壬癸酉醜, 主克害妻子.

有破祖空亡, 甲乙丙丁同上, 戊己人見戌, 庚辛子, 壬癸寅, 遇者主破祖業, 須並論之.

동미경에 운하되, 오귀공망이 있는데 갑기인이 사오를 보고, 을경인이 인묘를 보고, 병신인이 자축을 보며, 정임인이 술해를 보며, 무계인이 신유를 보는 것인데, 이 향에 이르면 주로 가난하다고 한다.

극해공망이 있는데, 갑기인이 누를 보고, 병정인이申을 보고, 무기인이 巳를 보며,

경신인이 寅을 보고, 임계인이 酉丑을 보면 주로 처를 극해한다고 한다.

파조공망이라는 것이 있는데, 갑을병정이 위에 있고 무기인이 戌을 보며, 경신인이 子를 보고,

임계인이 寅을 만나는 것인데 주로 조업을 파한다고 마땅히 논한다.